

# 영농철 불법 소각 '제로화'

### 익산시, 농촌지역 합동점검반 운영... 영농부산물·논·밭두렁 태우기 홍보 단속

익산시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소각 제로화에 나섰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6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 소각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읍·면·동 통리장 회의, SMS, 리플릿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소각금지 캠페인을 병행해 왔으며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처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왔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소각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과태

료 부과 시 직불금 총액의 5% 감액됨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축사갈래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10~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모작 직불금 대상 농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9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가 대야전통시장 신규 주차장을 26일 개장하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최선을”

### 대야전통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으로 교통난 해소

군산시가 대야전통시장 신규 주차장을 26일 개장하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야전통시장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기존 철도부지 10,527㎡에 10억원의 예산으로 171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했다.

대야시장은 매일 1일과 6일 열리는 전북권 최대 5일장이다. 목욕시장과 생선 등이 특화되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장날이면 하루 300여대 이상의 차량들이 몰려들어 시장내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된 주차장과 기존 조성된 주차장을 합하면 모두 340

여대 이상의 주차장 공간이 확보돼 주차장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종정 대야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주차장 추가조성으로 시장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앞으로 전국 최대의 전통 5일장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야전통시장은 불법주정차로 교통이 매우 혼잡했지만 인근 주차시설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대야시장을 찾는 시민들에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공무원이 직접 출연... 군산 홍보영상 '눈길'

### 군산시 관광진흥과, 일상회복 속 '가볼만한 군산 여행지' 소개

일상회복 속 관광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군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출연하며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시 공보담당관과 관광진흥과는 시티투어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개월 동안 콘티(영상을 제작할 때 장면 구도의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설계도)를 함께 구성하고 여러 번 사전 답사한 끝에 지난 5월 초 촬영을 끝냈다.

관광객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관광진흥과 직원 10여명은 직접 출연까지 해가며 군산 투어버스의 매력을 알리고 완성도 있는 영상 제작을 위해 열정을 다하였다.

이번 영상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군산의 관광명소를 누비며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해가는 관광객의 모습을 통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일상회복 속 관광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군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출연하며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투어버스의 매력을 담아내었다.

특히, 군산 시티투어버스의 인기코스인 고군산군도-시간여행마을 코스를 기본으로 군산만이 가진 근대문화유

산과 철길마을 등 인기여행지와 수려한 경관의 고군산군도까지 드론을 통해 실감나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도내 최초 '상생샵' 개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 익산점이 문을 열었다.

26일 홈플러스 익산점 4층에 개점한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은 전라북도에서는 최초 전국에서 네 번째로 운영되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 공간으로서 소비자들도 쉽게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은 익산시 협동조합협의회(회장 윤성식)에서 위탁 운영하며 전통차와 천년초 제품, 커피와 베이커리, 전통장류세트, 한지 속옷, 가죽가방과 지갑, 육포, 도마 등 26개소 제품 104개의 다양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들이 전시 판매된다.

대형마트 할인행사나 명절맞이 선물 기획전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이로움 화폐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상생샵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책자나 안내문을 비치해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착한 소비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두 일지리정책과장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대량 유통매장인 홈플러스 익산점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익산시 상생샵 매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진행

전북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군산시 소룡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돌고 있다.

4년간 도비 포함 총사업비 140억이 투입되는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활안전인프라 확충,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길 확장 및 공원 조성, 집수리 지원 생활안전인프라 확충사업들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공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본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소룡초, 월명중 전북외고 학군과 산업단지 접근성 등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 공원 녹지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전무하고 주택 노후화, 도로 협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올해에는 협소한 마을길 확장 및 선형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학생들과 주민, 노인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등 필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소룡동 지역은 인근에 학교와 산업단지가 있어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며,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양질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익산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1만원, 최대 1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인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연봉리 기준이율 적용 및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맘껏 누리' 기획 진행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진행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맘껏 누리' (위원장 이주현)는 지난 21일 맘껏 광장에서 '유스퀴즈 온 더 맘껏' 광장 기획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군산에 바라는 정책 발굴을 위해 진행된 이번 기획 활동은 ▲인테리어 진행 ▲희망하는 정책 제안이 이뤄졌으며 제안된 정책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정책 담당자를 만나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실괄지 만들기, ▲파우치 꾸미기, ▲포토존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기획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기획 활동을 추진한 맘껏 누리 부위원장 전설희(17) 학생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이 잘 전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